언어 영역

◈정답

1. ⑤	2. ①	3. ⑤	4. ③	5. ④
6. ③	7. ①	8. ④	9. ④	10. ⑤
11. ②	12. ③	13. ③	14. ④	15. ④
16. ③	17. ①	18. ②	19. ①	20. ③
21. ②	22. ②	23. ③	24. ⑤	25. ④
26. ④	27. ②	28. ①	29. ③	30. ②
31. ②	32. ④	33. ④	34. ①	35. ①
36. ②	37. ①	38. ②	39. ③	40. ④
41. ⑤	42. ④	43. ⑤	44. ⑤	45. ③
46. ⑤	47. ②	48. ⑤	49. ①	50. ④

◈해설

1. 김생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되면 자신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김생은 동생이 관리로서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 이상의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꾸짖는다. 김생의 언행을 통해 볼 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자신(김생)과 타인(서민)의 삶에 해가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2. 들려준 내용은 날개치기 비행을 하는 철새와 활상을 통해 비행하는 철새로 구분된다. 이 중 날개치기 비행을 하는 철새는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하며 이동하게 되므로 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밤에 이동한다고 하였다.

② 역풍이 불면 고도를 낮춘다고 하였다.

③ 활상하는 철새는 날갯짓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열이 나지 않는다.

④ 날갯짓을 하는 새는 날개치기 비행을 하는 철새다.

⑤ 활상하는 새는 상승 기류를 타고 이동하는 새다.

3. 선생님의 지적 사항을 네 개를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 보도록 한다. 주제 의식과 거리가 먼 문항은 ①이다.

기준이나 범위가 모호한 문항은 ②다.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을 직설적으로 묻고 있는 문항은 ③이다. 성격이 다른 물음이 묶여 있는 문항은 ④다. 그러나 ⑤의 경우는 어느 지적 항목과도 관련이 없는 문항이다.

4. 봉사반 토론자와 발명반 토론자가 두 차례 발언을 하였는데, 이 중 두 번째 발명반 토론자의 말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봉사반 토론자는 발명반 토론자가 근거로 제시한 실질적 성과에 대해, 많은 학생들의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봉사반 토론자는 봉사반 토론자의 말에 동의한다며 봉사반이 좋은 품성으로 양보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은 상대방 입론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다.

5. 봉사반과 발명반 토론자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동아리가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봉사반은 회원수가 많은 자신의 동아리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발명반은 대회 입상과 같은 실질적 성과를 거둔 동아리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천 단위 수에서 위치에 따라 숫자의 값은 달라진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여행을 하다보면 어느 곳이든 좋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로 연상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위치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행을 하다보면 좋은 사람을 장소에 따라 각기 달리 만난다 정도로 연상해야 할 것이다.

① 비밀 번호를 바른 순서로 눌러야 문이 열린다는 점에 주목하면 목적에 따라 여정을 정해야 한다는 연상은 어울린다.

7. 제시된 네 개의 자료 중 자료 1을 보면 청소년은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고, 우대 혜택을 주는 민간 시설과 기업도 늘어나길 바라고 있다. 또한 자료 3을 보면 가장 우대되어야 할 영역으로 교통수단 이용을 들었다. 이 두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①과 같이 공공시설 우대 규정이 민간 시설에 비해 미비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에 편중되어 있다는 주장은 어울리지 않는다. 민간 시설이 청소년을 더 우대하거나,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이용에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8. 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보면 ㉠은 공모의 취지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역시

그린 IT 운동의 개념을 고려할 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은 성과에 따른 포상 제도이므로 정책적 차원으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은 글 전체를 고려해 정책 당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의 경우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지만, 기업과 소비자의 의식 전환으로 수정하는 것은 상위 항목인 정책적 차원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9. 공공건물에 벽화 그리기를 위한 제안과 내용 그리고 기대 효과로 글이 구성되어 있다. 제안 이유에서 칠이 벗겨진 채로 면사무소나 보건소를 그대로 '배치한' 건물은 문맥상 '방치한'으로 바꿔야 한다.(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공건물을 자주 찾고 싶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문장 순서를 바로 뒤에 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②) 제안 내용에서는 벽화에 담아야 하는 주장을 받는 문장이므로 '그런데'보다는 '이를 위해'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③)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할 것'은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 중복이 있다며 '밑그림과 채색을 할 것'으로 바꾸면 오히려 어색한 표현이 되고 만다.(④) 마지막 문장은 주술 관계를 고려할 때 피동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⑤)

10. 조건인 교육적 효과와 주민 생활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답지는 ⑤이다. 학생들에게는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협동 정신을 심어 주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활발한 교류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답지다.
③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가 반영되지 못한 답지다.
④ 주민 생활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답지다.

11. 인칭 대명사에서 지시하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묶으면 ㉠, ㉡㈏과 ㉤, ㉥(아버지), 그리고 ㉢, ㉦(상대방)이다. 따라서 ㉢과 ㉦이 지시하는 대상은 같다.

① '내'를 '나의'로 바꾸면 '나의가'가 되는데 어색할 뿐만 아니라 어법에 맞지 않는다. ③ '우리'는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④ '아버지'를 다른 대명사로 바꾸면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⑤ '당신'은 3인칭 극존칭에 해당하는 대명사이므로 바꿀 필요가 없다.

12. '흉내'와 '시늉'의 용례를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ㄱ은 '아이들은 장터에서 장사꾼 흉내를 냈다'이고 ㄴ은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하랬더니 시늉만 했다'이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한다면 ㄴ의 시늉 앞에는 '장사꾼'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이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장사꾼 흉내'와 '공부하는 시늉'이므로 '남을 따라 함'과 '움직임을 꾸며 함'으로 풀이할 수 있다.
② '흉내' 뒤에는 '냈다'는 서술어가, '시늉' 뒤에는 '했다'는 서술어가 왔다.
④ 명절 분위기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과소비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⑤ '과소비'와 '위화감'이라는 단어가 조장 앞에 왔으므로 조장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13. 제시문은 옛 문헌에 사용된 문장 부호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주목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의 핵심 내용은 옛 문헌에 사용된 부호의 종류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14. ㉠의 부호들은 앞 글자나 앞 어구와 동일함을 표시해 주는 부호라고 하였다. 이미 나온 글자나 어구를 반복해서 표현할 경우 부호를 이용하면 인쇄가 아닌 필사본에서 보다 편리하게 그리고 빠르게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① 동일한 어구나 글자를 표현하는 부호이므로 단어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15. 옛 문헌에서 쉼표는 두점을 찍었고(①), 마침표로는 구점을 찍었다.(②) 그리고 표제어는 '–'로 대체하였고(③), 새로운 단위의 내용에서는 ○을 사용했다고 하였다.(⑤) 그런데 문단이 끝나는 위치에서는 '』'가 생략된다고 하였으므로 ④는 내용을 잘못 적용한 답지이다.

16.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무반주 성악곡의 '모방'이 설명되고 있다. 무반주 성악곡은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 모방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이를 변주의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① 두 번째 문단 이하를 보면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 고전 시대에 따라 반복의 양상은 달랐다.
②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무반주 성악곡에서 선율을 반복하는 것은 통일감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④ 세 번째 문단을 보면 다성 음악 시대를 지나 바로크 시대에 들어서면 화성을 중시했다고 하였다.
⑤ 반복은 동요와 같은 노래에서부터 다성 음악, 소나타 등에도 사용된다고 하였으므로 단순한 노래에서 복잡한 악곡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 '모방' 기법은 돌림 노래의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시작한 성부에 이어 시간차를 두고 같

은 선율로 시작한다. 그리고 반복으로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다른 선율로 노래를 이어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①이 가장 어울린다. 성부1과 시간차를 두고 성부3이 A를 반복하고, 이어 성부2가 A를 반복하고 있고, 또한 반복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 각각은 B, D, C로 이어진 선율로 이어갔기 때문이다.

② 시간차가 반영되지 않았다. ③, ④ 앞 선율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았다. ⑤ 돌림 노래의 형식이므로 A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야 한다.

18. ② <보기>에 따르면 빈 종이가 1:1.618의 황금 비율로 된 것이 아름답다고 하였다. 그리고 종이가 형태와 크기를 달리하며 반복되면 통일과 변화라는 미감이 생긴다고 하였다. 한편 제시문의 '소나타'는 주제가 다른 여러 악장이 음악적 대조를 이루며, 마지막 악장은 첫 악장에 비해 쉬운 음악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악장은 론도 형식으로 악장의 주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사이에 대조되는 주제들을 삽입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종이의 황금 비율과 소나타의 대조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소나타의 악장 구성이 황금 비율이라고 볼 만한 근거나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① 음악의 반복이 앵무조개, 종이, 건축에서 나타나므로 적절한 이해다.

③ 장식적 변주는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크기를 달리하는 변화와 같은 형태의 반복이라는 일관성을 동시에 보여 주는 것과 유사하다.

④ 세 번째 문단을 보면 '화성 반주의 악보 중에는 저음 성부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였으므로 앵무조개의 반복되는 무늬와 유사하다.

⑤ 음악의 반복은 변화와 통일성을 반복과 다양성을 동시에 보여 주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통일성과 변화와 일맥상통한다.

19. ① 문맥을 살펴보면 론도 형식은 악장의 주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이사이'에 이와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를 삽입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사이사이'는 '반복되는 주제와 주제 사이'에라는 공간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이 문맥에서는 '사이'만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발을 옮겨 놓을 때마다 '걸음걸음' 치마폭이 너풀거린다.'에서의 걸음걸음 역시 '발걸음과 발걸음 사이'라는 공간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고 '걸음'만으로 쓸 수 없다. 따라서 두 단어는 유사하다.

②, ③, ④, ⑤는 '대강' '바싹' '멀리' '가득'만으로도 표현 가능하며 공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0. ③ 원초적 건강성(생명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서씨와 일사불란한 기계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양옥 집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하여 개인의 자유의지와 생명성을 억압하고 있는 근대적 규율의 폭력성을 고발하려는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① 이 작품이 쓰인 1960년대 산업화 시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특징적인 어휘의 사용은 보이지 않는다.

② 서씨의 놀라운 힘을 확인했던 체험과 양옥집으로 이사 와서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이 나와 있을 뿐 빈번한 장면 전환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 비판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주 목적인 소설로, 그 부분 또한 서술자가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⑤ 서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 서술자 '나'로 설정되어 있다.

21. ② ㉡은 가문의 가보이자 영광된, 활기찬 생명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더러 영광스럽지 않은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것을 서씨가 거부함으로써 그 영광을 지키려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2. 나머지 것들은 모두 양옥 속의 안주(安住)의 한결같은 생활(현대인의 기계적 일상 생활)과 관련한 것들이고, ⓑ는 그것을 깨고 싶어 하는 나의 행위와 관련한 것이다.

23. <보기>의 내용은 새로운 차원의 '사실성'을 만들기 위해 작가가 '변형'하여 '실감'을 주는 장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③ 역시 <보기>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성'을 만들기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①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일지 몰라도, 외국인의 눈에는 사실적인 소재일 것이다.

② '동대문'이라는 배경 역시 '사실성'을 만들고 있는 배경으로 봐야 할 것이다.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 역시 실감을 주기 위한 작중 장치로 이해해야 <보기>에 부합한다.

⑤ 환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보기>의 사실성과 충돌되는 해석이다.

24. ⑤ ㈅는 창조 도시 자체가 갖는 문제점과 전망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창조 도시의 추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설명하고 있다.

25. ④ B시는 <보기>에 지역 산업체와의 교류가 부족하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산업 환경과의 역동적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② A시는 창조 도시의 주된 동력으로 창조 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는 시장이 의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창조 도시를 주도하고 있다.

③ B시는 창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이 적용되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⑤ A시는 제조업 퇴조라는 산업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도시 특성을, B시는 창의적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많은 도시 특성을 지니고 있다.

26. ④ ㈎의 창조 도시가 갖추어야 할 내용, 즉 인재들을 위한 문화와 거주 환경의 창조성이 풍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요소를, 혁신적이고도 유연한 경제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① ㈒의 창조 산업의 산출물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충돌된다. 성공 가능성도 ㈒의 내용으로 볼 때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의 첫 문장 '창조 도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단시간에 환경을 개조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은 아니다.

③ ㈑의 첫 문장인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하기 위한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통해 그 선후가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에 창조 계층의 창의력은 표준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있으나 이 말과 그 능력이 표준화되어야만 창의력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은 같지 않다.

27. ② '창출(創出)하다'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 기존에 있던 것의 수나 분량 등을 많게 한다는 의미인 '늘리다'와는 의미 차이가 있다.

28. ① ㈎에는 임과의 첫 만남에서 느꼈던 짜릿함과 임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 버렸던 기억과 헤어짐을 걱정했었던 화자의 마음 등이 환기되고 있다. ㈏에는 화자가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었던 봄, 여름, 가을의 과거의 상황들이 환기되고 있다. ㈐에는 세월의 빠름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봄의 상황(엊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이 환기되고 있다.

② 자연의 변화가 ㈏와 ㈐에 나타나 있으나, ㈏는 부분적으로 화자의 미래와 자연의 미래가 관련성이 없지는 않으나, ㈐의 변화는 화자의 미래와는 무관하다.

③ 세 시 모두 감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으나, 대상의 예찬과는 전체적으로는 관련이 없다. ㈎의 5행에 부분적으로 감각적 이미지가 대상의 예찬과 관련되어 있다.

④ 관조적인 자세가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시는 ㈏에 한정된다.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시는 ㈐에 한정된다.

29. ③ ㉠에는 이별의 슬픔을 재회의 희망으로 옮기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은 화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화자가 목격한 자연 현상이다.

⑤ ㉠이 화자 생각의 표현이고, ㉡이 사실의 기술이다.

30. ② ㈐의 '새벽 서리'는 임의 부재 속에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화자가 애타게 임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배경이다.

31. ② <보기>는 한용운 역설적 시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님의 침묵'의 화자는 '님'의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래는 '님'과의 소통 즉 화자의 '님'과의 '교감'하는 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① 화자의 상황에 대한 감당하지 못함도, ③ 자연 친화도, ④ 침묵과 사랑의 시간의 선후도 <보기>와 무관한 적절하지 못한 감상이다 ⑤ 이 노래는 '님'의 노래가 아니라 화자가 부르는 노래이다.

32. ④ 4연에 사용되고 있는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표현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삶이라는 개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지,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다.

① 1연과 2연에는 특정한 때가 언급되어 있고 그때에도 그곳을 지나갔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내용의 문장이 유사한 통사 구조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⑤ 한 개씩 돋아났다가(생성) 모여서 살고 마침내 떨어져 사라지는(소멸) 나뭇잎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삶 역시 그러함을 깨닫고 있다.

33. ④ '조각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는 임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임과 같이 있고 싶은 바람 혹은 임을 멀리서나마 보고 싶은 바람 등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고, '잘새'가 되고 싶은 바람에는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화자의 설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투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은 작품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① 관습적 표현 속에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는 <보기>의 진술을 통해 정당성이 확보된다.

② 소망이 여러 가지로 나열되고 있는 것을 통해

소망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은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동식물들로 그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보기>에 언급된 인간과 자연의 깊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화자의 소망을 통해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임과 헤어져 있는 고난과 결핍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34. ①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통해 핵심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의 내용과 그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35. 둘째 문단의 설명과 <보기>의 그림과 조사 결과 'ㄹ'의 설명을 종합하면, A와 D는 수각류, B와 C는 용각류에 해당하는 공룡이다. ① C는 초식 공룡이지만, A는 육식 공룡에 해당한다.

② 건열의 흔적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③ ㅁ의 내용을 통해 공룡과 새가 같은 시대(중생대 백악기)에 함께 살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④ B와 C의 h는 4족 보행 공룡이기 때문에 뒷발자국 길이로 계산해야 하는데, B의 h는 30cm×4이므로 120cm이고, C의 h는 36cm×4이므로 138cm이다. 따라서 B가 C보다는 h가 작았을 것이다.

⑤ B는 용각류이므로 4족 보행을, D는 수각류이므로 2족 보행을 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36. ② 상대적 보폭 거리는 '보폭 거리(SL)/h'로, h는 4FL로 계산하면 된다. A는 FL이 25㎝이므로 h는 100㎝이다. A의 보폭 거리가 평균 230㎝이므로 상대적 보폭 거리는 2.3이 된다. D는 FL이 25㎝, 보폭 거리는 150㎝이므로 상대적 보폭 거리는 1.5가 된다. 넷째 문단의 걸음 판정 기준에 따르면 2.3인 A는 빠른 걸음, 1.5인 D는 보통 걸음으로 걸었을 것으로 보행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37. #95의 지시문 가운데에 "인부들도 즐거운 낯이 아니다."는 부분으로 미루어 보아 인부들이 불이의 집을 허무는 것에 기꺼워하지는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영수가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며 지나간 기억을 반추하는 부분은 등장하지 않는다. #97에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는 장독대 부분을 부수는 장면은 과거의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명수가 반추하는 부분은 아니다.

③ 영희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영호의 말에 어머니는 '……'로 반응하고 있지만, 이 이후에 어머니가 시종일관 담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④ #89에서 즉각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91에서 '다운'을 당했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치 못하다.

⑤ #90에서 영희는 다소곳하게 앉아 있기는 하지만, #92에서 다정한 우철의 행위에 오히려 약간 화가 나있는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있으므로 적절치 못하다.

38. 담벽의 구멍을 보여 준 이후 그 구멍으로 해머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담 바깥쪽에서 담 안쪽으로 해머가 들어가는 장면이므로, 담벽 안쪽의 시선을 대변한 것이 된다. 따라서 카메라가 인부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담벽 안에 있는 난쟁이 식구들의 시선을 대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고 했으므로, 카메라는 구멍 바깥쪽에서 인부들의 시선에서 촬영해야 한다.

39. 영희와 우철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먹고 있으며, 가족들은 철거되는 집 안에서 밥을 먹고 있으므로, 공간적 배경에 있어서 이 두 장면은 <보기>에서 말하는 유사성보다는 대조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③은 적절치 못하며, 오히려 ⑤가 적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0. 지문은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이라는 관점과 개연적이라는 관점을 '스트레스와 병'이라는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차이를 설명(대비)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은 객관적으로 두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①, ②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주장이나, 절충적 대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⑤처럼 장단점 비교나 일반인의 상식에 대한 비판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41. 셋째 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이처럼"이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들이 곧 앞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집단 수준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된다.

①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언급하고 있고, 필연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여러 원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첫째 문단 마지막 줄을 참고하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 왔다.'고 언급이 되어 있다.

③ 첫째 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집단 수준의 인과를 일반화 한 것이 아니라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일반화한 것이다.

④ 개별자 수준 인과의 개연성은 제시문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

42. ㉠은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더라도 스트레스가 여전히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기>는 이러한 문맥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좋은 씨앗에 해당하고, 병은 좋은 열매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물을 제때 주지 않은 것과 병충해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요인과 모순적인 것으로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적절한 물 공급과 병충해 방제가 병의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하면 다른 요인이 성립하지 않아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것이므로 여전히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임이 훼손되지 않고 따라서 필연적인 인과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는 적절한 물 공급과 병충해 방제가 좋은 열매가 열리는 또 다른 원인임을 밝혀주는 것이 적절하다.

43. 동영상 압축은 변환된 성분 중 화면과 화소 등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압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환된 성분을 제거하는 정도에 따라 압축된 파일의 크기가 달라진다.

① 화면이 복잡하더라도 변화된 영역이 없으면 화면 간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 (2문단)

② 화면이 흐려지는 경우는 화소 간 중복을 너무 많이 제거할 경우이다. (3문단)

③ 화소 간 중복을 제거하면 화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질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경우에는 화소 간 중복 제거는 삼가는 게 좋다. (3문단)

④ 이전 화면이 없어 제거할 수 없는 경우는 '화소 간 중복'이 아니라 '화면 간 중복'이다. (2문단)

44. ㉠은 제거되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에 해당한다.

45. 화소 간 중복 정도는 '화면이 단순할수록 또 규칙적일수록' 많고(3문단), 화면 간 중복 정도는 이전 화면과 비교해서 출현, 소멸, 이동하는 영역이 적을수록 높다. 따라서 ㈎는 ㈏에 비해 화면이 단순하므로 화소 간 중복 정도가 높고, ㈏는 이전 화면에 비해 별 도형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므로 화면 간 중복 정도가 높다.(㈎는 모든 도형의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화면 간 중복이 거의 없다.)

46. ⓐ의 '지다'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의 의미로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는 '생기다'와 유사한 문맥적 의미로 쓰였다. ①, ②, ③, ④는 모두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는 '생기다'의 의미이지만 ⑤의 장가를 '들었다'는 '남자가 결혼하다'의 의미이다.

47. '상공'은 '처사'의 도덕이 높음을 보아 딸 또한 영민하리라 판단하고 있다. 또한 '처사'를 선인으로 대하면서, 처사의 딸이 재덕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혼인을 결정한다. 지문의 후반부에서도 초동의 말에 의하면 박 처사는 사백 년 전에 살던 사람이다. 이로보아 '상공'의 사람 보는 눈은 평범한 사람과 다름을 알 수 있다.

① '박 처사'는 '상공'의 인품을 보고 혼인을 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공의 아들이 마음에 들어 청혼하고 있다.

③ 상공의 부인은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혼인을 하려하느냐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④ '초동'은 '박 처사'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상공' 일행을 측은히 여기고 있지는 않다.

⑤ 지문에서 '이시백'은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따르고 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다.

48. ㉤에서 대화 속에 고사(故事;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를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친을 위로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청하는 뜻에서 인용한 것이다.

49. 수직적 사고는 초월계를 현실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이보다는 이시백과 박 처사의 딸의 혼인이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가 아우러지는 것이다.

50. ⓐ는 돌아가자니 남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고, 돌아가지 않자니 허황함이 막심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인 '진퇴양난(進退兩難)'이 적절하다.

① 이왕지사(已往之事) : 이미 지나간 일

② 자포자기(自暴自棄) :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